

롯데케미칼, 웅진케미칼 인수 추진

6월21일 인수의향서 제출 ... 화학섬유 시너지에 수처리 경쟁력 기대

롯데케미칼(대표 허수영)은 6월24일 웅진케미칼 인수설에 대한 조희공시에서 “6월21일 웅진케미칼 인수를 위한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롯데케미칼 관계자는 “인수에 성공하면 주력인 화학섬유 부문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웅진케미칼은 우리의 신성장동력인 수처리 부문에서도 경쟁력이 높아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롯데케미칼은 뒤늦게 웅진케미칼 인수전에 참여했으나 사업 연관성을 바탕으로 인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웅진케미칼은 국내 수처리 여과막(멤브레인) 부문 1위로 2012년 기준 매출액 1조1104억원에 영업이익 285억원을 기록했다.

웅진케미칼 채권단은 7월 말 본입찰 자격자를 선정하고 9월 초 본입찰 제안서를 받아 10월 매각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6/25>